

한국교회의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 태 섭*

- I. 서론
- II.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 III.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예수천당 불신지옥"
- V. 최근 한국교회의 천국에 대한 이해의 변화
- VI. 결론

I. 서론

한국 교회에서 “천국”(하나님 나라)¹⁾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의미로 곧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천국”의 피안(彼岸)적인 차원을 인정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라고 할 때에 예수가 강조한 “천국”의 차안(此岸)적 차원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has come near)”(마4:17),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

* 평택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1)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학계에서 이미 고정된(fixed) 표현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그 전통을 반영하여 ‘신(神)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란 표현을 사용한다.

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b-21)처럼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학계에서는 민중신학(民衆新學)을 중심으로 ‘현실 참여’적이고 차안(此岸)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였다.²⁾ 그러나 ‘비주류’라는 외연적 한계 때문에, 아쉽게도 민중신학(民衆新學)은 한국교회 전체에 괄목할만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개신교 주류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한국교회의 일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해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사적, 성서학적 관점에서 ‘천국’(하나님나라)의 의미를 분석하고,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천국의 피안(彼岸)적 차원만을 강조해온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에 그 차안(此岸)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학자, 목회자 및 평신도 운동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II.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과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전자는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하늘들의 왕국’(kingdom of heavens)인데,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천국’(天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표현이 다른 만큼 그 의미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³⁾ 그러나 다음

2)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228-253; 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328-339.

3) 예를 들어, 올브라이트(Albright)와 만(Mann)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지상의 예수 공동체를 의미하고,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최후 심판 이후에 도래할 성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W. 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Garden City, N.Y.: Doubleday, 1971], 155, 233). 알렌(Allen)과 파먼트(Pamment)는 ‘천국’은 오로지 피안(彼岸)적이며 미래적인 실재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 가운데 이미 실현된 실재 통치권을

에 제시한 성경구절을 살펴보면 양자(兩者)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 19:23-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예수는 2개의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된 ‘천국’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상호치환 가능한 개념들이란 사실을 알려준다.⁴⁾ 사실,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은 마태복음에만 30회 등장하는 표현이다(마 3:2; 4:17; 5:3, 10, 19, 20; 7:21; 8:11; 10:7; 11:11, 12; 13:11, 24, 31, 33, 44, 45, 47, 52; 16:19; 18:1, 3, 4, 23; 19:12, 14; 20:1; 22:2; 23:13; 25:1).⁵⁾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천국’(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이란 표현을 사용하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Margaret Pamment, “The Kingdom of Heaven according to the First Gospel,” *NTS* 27.2 (1981), 232; W.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12], lxvii-lxviii). 기타 다른 관점들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Jonathan Pennington,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7), 303-10.

- 4)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2007), 102-03; C.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68; W. D. Davies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1 (Edinburgh: T. & T. Clark, 1988), 389-92; Pennington, 위의 책, 303-10.
- 5) cf. 딤후4:18 “그의 천국에”(ει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αὐτοῦ τὴν ἐπουράνιον). 여기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 마태복음과 같은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the kingdom of heavens)이 아니라 ‘ἡ βασιλεία ἡ ἐπουράνιος’(the heavenly kingdom)이다.

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는 표현만 사용한다. 물론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총 4회(12:28; 19:24; 21:31, 43)에 걸쳐 사용하지만, 이 복음서 기자가 ‘천국’이란 표현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신명(神名)을 직접적으로 발설하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⁶⁾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의미상 차이는 없는 동일한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은 왜 중요한가?

-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시작: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1:15 cf. 마4:17)
- 예수의 지상사역 요약: “예수께서 …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9:35)⁷⁾
- 예수의 사역 마지막 기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1:3)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모든 교리와 강령의 핵심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그리고 예수의 3년간 지상사역을 요약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4:23과 9:35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 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가량 지상에 머물면서 유

6) 양용의, 『하나님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4-27.

7) Davies and Allison, 위의 책, 412.

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가르침의 정수(精髓)도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예수의 생애와 사역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천국)인 것이다.

- 12 제자들의 사역: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마 10:1, 7)
- 7 사역자(집사⁸⁾)들의 사역: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행 8:12)
- 사도 바울의 사역⁹⁾: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행 19:8 cf. 20:25).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23, 30-31)

예수 이후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예수의 직계 열두 제자들, 초대교회 일곱 사역자(집사)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닦은 사도 바울이다. 이들의 사역을 보고하거나 요약하는 본문들을 살

8) 사도행전에는 우리말 ‘집사’에 해당하는 ‘διάκονος’가 사용되지 않았다. 사도행전에는 유일하게 21:8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는 한글 성경에만 나오고 헬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이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역자(집사)’라는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9) 바울은 본인의 서신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총 8차례 사용한다(롬14:17; 고전4:20; 6:9, 10; 15:50; 갈5:21; 골4:11; 살전2:11-12; 살후1:5 cf. ‘하나님 아들의 나라’ 고전15:24; 골1:13). 복음서들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시기에, 구약(舊約)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8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초대 기독교회에서 이들이 선포하고 전수했던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약성경과 기독교 교회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예수, 12명의 직계 제자들, 7사역자(집사)들, 사도바울—을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이해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Ⅲ.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국교회의 전도 구호로 알려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사실 한국교회의 자생적인 천국이해라기보다 초기에 내한한 영·미권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연원(淵源)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무디(Dwight L. Moody, 1837-1899)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과 성서비평학이 미국에 소개 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교회는 근본주의로 경도되었고, 마침 존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가 주창해왔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¹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비의 사상은 스코필드(Cyrus I Scofield),¹¹⁾ 무디(D. L. Moody), 허드슨 테일러(J. Hudson Taylor), 제임스 브룩스 (James H. Brookes) 등 영·미권 기독교계 인사들에 영향을 주었다.¹²⁾

10)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15-28.

11)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1909년에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인쇄된 스코필드 성경은 1979년까지 미국에서만 300만부가 넘게 팔렸다. Oswald T. Allis, *Prophecy and the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45), 267 참고.

이 가운데 무디는 1880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성경학교를 개최하였고, 1886년에는 해외선교사 파송을 위한 ‘학생자원운동’(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출범시켜 1920년까지 8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바로 이 운동의 주역 가운데 하나가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피어선 기념 성경학교(1912, 現평택대학교) 설립의 배경이 된 세대주의자 아더 피어선(Arthur T. Pierson)이었다.¹³⁾ 다음 표를 보면 20세기 초 내한한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약 60% 가량이 학생자원운동(SVM)에 영향을 받은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¹⁴⁾

연도	총 내한 선교사	내한선교사중 SVM출신자수
1906	14	8
1907	43	23
1908	48	29
1909	30	21

뿐만 아니라 조선 최초의 개신교 목사·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도 모두 무디의 세대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또한 한국교회 장로교의 요람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사무엘 마펫(Samuel A. Moffet, 馬布三悅) 역시 학생자원운동(SVM) 출신으로서 무디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¹⁶⁾ 사무엘 마펫은 1901년 자신이 설립한 평양신학교에서 교수·교

12) Craig A. Blasing, “Dispensationalism, The Search for Definition” in Craig A. Blasing and Darrell L. Bock (ed.),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The Search for Definitio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2), 21.

13) 테이나 L. 로버트, 박달진 譯,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서울: 양서각, 1988), 203-215.

14) 아래의 표는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51의 일부를 인용.

15) 배덕만, 위의 책, 31-32.

16)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馬布三悅 博士 傳記』 (서울: 大韓예수교長老會總會教育部, 1973), 61-62.

장직을 맡아 조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936년까지 400여 명의 목사 후보생들을 배출하였다. 결국 초기 미국 선교사들에게 있어 무디의 사상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들의 신학교육을 통해 육성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당연히 세대주의 신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¹⁷⁾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하나님 나라’(천국)는 피안(彼岸)적 색채 일변도이다.¹⁸⁾ 그것은 현재와는 관계가 없고 항상 미래에 속하는 유토피아이다.¹⁹⁾ 비록 이 땅에선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면 사후에 천국을 약속받는다. 세대주의는 비판적인 현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⁰⁾ 무디 역시 ‘천국’에 대해 이 세상과 불연속 관계에 있는 ‘사후 세계’(死後世界)라고 이해했다.

17) 예를 들어, 길선주의 말세학(末世學)은 인간 영혼의 최종 안착지로 지옥계, 천상계(새 예루살렘), 지상계(새 예덴)의 말세삼계(末世三界)를 주장한다. 예수의 1차 공중 재림 시에 부활한 성도와 참된 교인들이 휴거를 받게 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안식할 곳이 천상계(천상 무궁안식 세계)이다. 예수의 2차 지상 재림 후 7년 대환란 중 숨어 신앙을 지킨 교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상계(지상 무궁안식 세계)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악인들도 부활하여 마귀와 함께 갇히는 곳이 지옥계(지하 무궁형벌 지옥계)이다. 예수의 2중 재림(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같은 길선주의 말세사상은 세대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9-324 참고.

18) 물론 세대주의의 역사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계시록이 미래적 신천신지(新天地)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cf. 계21-22장).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천국)는 계시록만의 전유물이 아닌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의 주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신약전체를 아울러 통전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19) 조지 마스든, 박용규 譯, 『근본주의와 미국문화』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280-285.

20) 무디의 비판론적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의 표준적 설교 속에 등장한다: “나는 이 세상이 난파선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선(船)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무디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를 구원하라!’”(조지 마스든, 위의 책, 93에서 재인용)

나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 그곳은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 곳이기 때문이다. (중략) 그렇다, 우리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멀고 먼 나라로 옮겨 가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중략) 여행은 무엇으로도 족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할 동안 고생으로 지치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기쁨과 위로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큰 보람을 줄 것이다.²¹⁾

개신교 전래 초기, 무디의 선교운동에 영향을 받은 다수의 선교사들은 ‘천국’을 신자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저 세상’으로 가르쳤다.²²⁾ 결국 한국교회 신앙전통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길선주 목사나 최권능 목사 같은 인물들은 천국을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통을 잘 견디어 약속받는 사후세계로 이해하게 됐다.²³⁾ 특히, 최권능 목사가 주장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구호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라야 누릴 수 있는 곳’이란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내가 세상을 떠나 천당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요단강 가에서 천사 좌우에 나열하고 14만 4천 명의 천가대가 만년송을 탄주할 새 24장으로 시립한 중에 주님이 내 손목을 잡으실 것입니다. 오! 내 손을 잡는 주님의 손에는 못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할렐루야 소리가 우레같이 진동할 것입니다. (중략) 오, 예수 믿고 천당!²⁴⁾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에는 ‘천국은 곧 사후세계’라는

21) 드와이트 무디, 김경신 譯, 『천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23-24, 112에서 인용. cf. 밑줄은 논문 필자의 강조.

22) 한승홍, “초기선교사들의 신학과 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1 (1991), 49-67; 황재범,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신학의 문제,” 『종교연구』 59 (2010), 71-98.

23) 허호익, 위의 책, 319-324.

24) 정행업 編著, 『오직예수: 예수 천당을 권능있게 전하다 순교한 최봉석 목사의 전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41-142에서 인용. cf. 밑줄은 논문 필자의 강조.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듯, 최근에 한국에서 출간되어 종교부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책들은 한결같이 사후세계 경험담(임사체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은 2010년 아마존 종교부문 1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기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²⁵⁾ 하버드대학 신경외과 의사였던 이븐 알렉산더(Eben Alexander)가 뇌사상태에서 극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자신의 사후세계 체험담을 기록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The Proof of Heaven)』와²⁶⁾ 심정지(心停止)상태에서 임사체험을 경험한 미국의 외과의사 메리 닐(Mary C. Neal)의 경험담 『외과의사가 다녀온 천국(To Heaven and Back)』역시 미국과 한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는 인기를 구가하였다.²⁷⁾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충현교회 전(前)담임목사였던 신성종 목사가 8일 간의 신비체험 이후 저술한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역시 여러 보도매체를 오르내리며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⁸⁾ 이 책들의 공통점은 사후세계로서의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책들에 여전히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내세지향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다.²⁹⁾

25) 2015년에 이 책의 주인공 알렉스 말라키(Alex Malarkey)는 자신의 사후세계(천국) 경험담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하였다. <http://www.christianitytoday.com/gleanings/2015/january/boy-who-came-back-from-heaven-retraction.html>

26) 이븐 알렉산더, 고미라 譯, 『나는 천국을 보았다』 (서울: 김영사, 2013).

27) 메리 C. 닐, 한은경 譯, 『외과의사가 다녀온 천국』 (서울: 크리스천서세스, 2014).

28) 신성종,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9).

29) 사실 유토피아적 사후세계로서 천국(하나님 나라) 이해는 외국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한 관점의 책들이 꾸준히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리폼드(Reformed) 신학교 신약학 교수이며 학장인 에드워드 도넬리(Edward Donnelly)조차도 이런 식의 천국이해를 담은 책을

IV. 하나님 나라(천국)에 대한 성경적 이해

사실, 유토피아적인 사후세계 개념으로서의 ‘예수천당’은 암울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를 살아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 짙고도 강한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기독교의 정수(精髓)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진정성이 확인 되는 ‘죽음의 신학’이 될 것이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의 피안성(彼岸性)도 발견할 수 있다.³⁰⁾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내세지향적인 메시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 현재적 하나님 나라(천국)

신약성경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의 첫 메시지는 ‘천국의 도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 여기서 ‘가까웠느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ἤγγικεν’의 시제는 현재 완료이다(has come near). 이 구절에 따르면, 천국은 신자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실재라는 것이다.³¹⁾ 이러한 하나님 나라(천국)의 현재적 차원은 다른 곳에서도 쉽게 발견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여기서 ‘이미 임하였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ἔφθασεν’ 역시 이미 일어난 사건을 표지하는 단순

저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2013년에 번역·출판되었다. 에드워드 도벨리, 이스데반 譯,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30)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들(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최후심판의 비유)과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적 실재로서의 ‘천국’을 가리킨다(cf. 계21-22장).

31) Davies and Allison, 위의 책, 389-392.

과거시제(aorist)로 사용되었다.³²⁾ 이러한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천국) 개념은 예수의 산상수훈(山上垂訓) 첫머리에 등장하는 ‘팔복’(八福, the Beatitudes)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마태복음 5:3-10).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2.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3.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χορτασθήσονται)
5.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ἐλεηθήσονται)
6.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ὄψονται)
7.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κληθήσονται)
8.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μακάριοι οἱ δεδιωγμένοι ἕνεκεν δικαιοσύνης,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예수가 선언한 팔복(八福)은 ‘천국’이란 단어를 시작과 끝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inclusio, 首尾相關) 구조이다. 수미상관 혹은 인클루지오(inclusio)라고 하는 문학구조는 문두(文頭)와 문미(文尾)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³³⁾ 다시 말해 예수의 팔복(八福)

32)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G. R. 비슬리-머리, 박문재 譯, 『예수와 하나님 나라』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1986]), 132-41 참고.

33) Davies and Allison, 위의 책, 92-93.

은 ‘천국’을 부각시키고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제1복(福)과 제8복(福)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란 약속이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 ‘ἔστι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간의 2복(福)부터 7복(福)까지의 약속이 모두 미래 시제(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 χορτασθήσονται, ἔληθήσονται, ὄψονται, κληθήσονται)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팔복(八福)의 구조적 및 시제적 특성은 ‘천국’이 사후에 들어갈 유평파야적 공간이라는 기존의 상념을 깨고 ‘이미 성도들이 소유한 실재(實在)’라는 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⁴⁾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비유들도 등장한다(마태복음 13:44-46).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Ὅμοια ἔστι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θησαυρῷ κεκρυμμένῳ ἐν τῷ ἀγρῷ, ὃν εὐρών ἄνθρωπος ἔκρυψεν, καὶ ἀπὸ τῆς χαρᾶς αὐτοῦ ὑπάγει καὶ πωλεῖ ἅπαντα ὅσα ἔχει καὶ ἀγοράζει τὸν ἀγρὸν ἐκεῖνον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

Πάλιν ὁμοία ἔστι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ἀνθρώπῳ ἐμπόρῳ ζητοῦντι καλοὺς μαργαρίτας· εὐρών δὲ ἓνα πολύτιμον μαργαρίτην ἀπελθὼν πέπρακεν πάντα ὅσα εἶχεν καὶ ἠγόρασεν αὐτόν.

마태복음 13:44-46에는 ‘천국’에 대한 2개의 비유가 등장한다. 전자는 소위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이고, 후자는 ‘진주의 비유’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비유들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현재내지는 완료 또는 과거 시제를 표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의 경우 ‘감추인’(κεκρυμμένῳ)은 완료분사, ‘발견한 후’(εὐρών)는 단순과거 분사, ‘숨겨두고’(ἔκρυψεν)는 단순과거 시제 직설법동사, ‘돌아가서’(ὑπάγει), ‘가진’(ἔχει), ‘팔아’(πωλεῖ),

34) Donald A. Hagner, *Matthew 1-13* (Dallas, Tex.: Word Books, 1993), 91-92; Davies and Allison, 위의 책, 439-447.

‘사느니라’(ἀγοράζει)는 모두 현재 시제 직설법동사들이다. 후자의 경우 ‘구하는’(ζητοῦντι)은 현재 분사, ‘발견하매’(εὐρών)와 ‘가서’(ἀπελθών)는 단순과거 분사, ‘팔아’(πέπρακεν)는 현재완료 직설법동사, ‘가지고 있던’(εἶχεν)은 미완료 직설법동사, ‘샀더라’(ἠγόρασεν)는 단순과거 시제 직설법동사이다. 이러한 시제의 동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천국(하나님 나라)은 이미 도래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발견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유하였다는 것이다.³⁵⁾ 결국 천국은 죽어야만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아닌 ‘이미 도래하여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실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도래한 천국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수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이 구절도 하나님 나라(천국)가 ‘성도들 안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현재시제: ἔστιν) 실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³⁶⁾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아니며 ‘여기’(ἔδε) 혹은 ‘저기’(ἐκεῖ)라고 하는 ‘공간적’(空間的) 실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³⁷⁾ 결국 신약성경이 말하는 천국(하나님 나라)은 사후세계의 유토피아적 공간을

35) 양용의, 위의 책, 78-90.

36)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ἐντὸς ὑμῶν ἐστίν)라고 했을 때, ‘너희 안에’(ἐντὸς ὑμῶν)는 문자적으로 ‘in you’가 아닌 ‘among you’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신자 ‘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 혹은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는 불필요한 구분이다. 개인 하나 하나가 신적 통치를 경험하며 살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신적 통치가 구현 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안에’에 해당하는 ‘ἐντός’는 신약 마23:26에도 사용되고 있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그릇의 안(ἐντός)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의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ἐντός’는 분명히 ‘among’이 아닌, ‘in’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7) John Nolland, *Luke 9:21-18:34* (Dallas, Tex.: Word Books, 1993), 851-854.

골자(骨子)로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신자들 안에 이미 도래한(or 도래할 수 있는) 현재적 실재이다.

2. 하나님 나라(천국)의 핵심

상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천국)의 핵심이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혹은 천국)이라는 어구 자체는 구약성경이나 제2성전기 유대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God)과 ‘나라’(kingdom)라는 단어가 결합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מְלָכוּת’(및 그 파생어구) 혹은 헬라어 ‘βασιλεία’가 신(神)에게 적용되는 사례를 살피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מְלָכוּת’의 규(圭)는 공평한 규(圭)이 니이다(시 45:6)
-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מְלָכוּת’으로 만유를 다스리 시도다(시 103:19)
-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מְלָכוּת’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대상 29:11)

시편 45:6에서 ‘규’(圭)는 왕권(王權)을 상징하는 지팡이(scepter)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מְלָכוּת’는 공간적 개념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royal reign, domin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더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용례를 시편 103:19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도 ‘מְלָכוּת’를 공간적 개념의 ‘나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매우 어색해지기 때문에 개역개정본 이를 ‘왕권’(王權)으로 번역하였다. 역대상 29:11에서도 개역개정본은 ‘왕국’(kingdom)으로 번역 될 수 있는 ‘מְלָכוּת’를 문맥에 더 자연스러운 의미인 ‘주권’(dominion)으로 번역했다. 이처럼 구약에서 신적(神的) ‘kingdom’은 ‘king’s dominion’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³⁸⁾ 이와 같은 ‘통치’(reign)의 개념으로서 ‘나라’는 제

2성전기 유대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³⁹⁾

- 우리 하나님의 βασιλεία가 심판받는 나라들 위에 영원합니다
(솔로몬의 시편 17:3)
- 그 때에 그(神)의 βασιλεία가 그의 온 피조물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 10:1)
- 불멸의 왕의 가장 위대한 βασιλεία가 모든 사람들 위에 드러날 것입니다
(시빌의 신탁 3:47-48)

상기한 예에서 ‘βασιλεία’를 ‘공간적 개념의 나라’로 이해해서는 그 의미가 어색하다. 구약성경에서 ‘מְלֻכָּה’가 하나님(God)과 연결이 될 때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제2성전기 유대문헌에서 사용된 ‘βασιλεία’ 역시 그것이 하나님(God)과 연계 될 때, 그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⁴⁰⁾ 사실 ‘מְלֻכָּה’나 ‘βασιλεία’의 정확한 뜻이 단순히 ‘나라’(nation)가 아닌 ‘왕국’(kingdom)인 점을 염두에 둔다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 단어들의 강조점이 ‘왕’과 그의 ‘통치권’에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신적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主祈禱文)의 사례를 들 수 있다(마태복음 6:9-10).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ἀγιασθήτω τὸ ὄνομά σου)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ἐλθέτω ἡ βασιλεία σου)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α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γῆς)⁴¹⁾

38) George Beasley-Murray,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Exeter; Grand Rapids: Eerdmans; Paternoster, 1986), 17.

39) 아래의 3개 구절은 양용의, 위의 책, 23에서 일부 재인용.

40) 양용의, 위의 책, 23-24.

주기도문은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갖는 세 문장으로 시작한다. 세 문장 모두 ‘3인칭 단수 단순과거 명령형 + 단수명사 +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라는 구조로 짜여 있다. 마태복음은 삼중구조(triad)가 중요한 데,⁴²⁾ 주기도문 첫머리에 등장하는 세 문장이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 셋의 의미가 ‘상호교환적’이란 사실을 암시한다.⁴³⁾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곧 ‘신적 통치의 구현’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신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⁴⁴⁾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들어갈 유토 피아’라는 공간적 차원에 치우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오히려 그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 하나님 나라 이해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이다.⁴⁵⁾ 따라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암송에만 치중한다면 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국교회가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3.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관계

상기한 바와 같이 예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고 선포했다(마12:28).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신적 통치’라는 사

41) 이 번역은 헬라어 원문의 문법과 어휘를 최대한 반영해서 번역한 필자 본인의 사역(私譯)임.

42) Glen H. Stassen, “The Fourteen Triads of the Sermon on the Mount, Matt 5:2-7:12,” *JBL* (2003), 267-308.

43) Pennington, 위의 책, 150-51.

44) Davies and Allison, 위의 책, 602-605.

45)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공간적 차원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천국 이해에 있어서 그 ‘공간성’(空間性)은 본질적·핵심적 개념이 아닌 부차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과 불의가 존재하며, 악의 세력이 활발하다. 만약 신적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러한 혼란이 존재하는가? 이 모순에 대해 예수는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마태복음 13:31-32; 13:33).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Ἄλλην παραβολὴν παρέθηκεν αὐτοῖς λέγων· ὁμοία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κόκκῳ σινάπεως, ὃν λαβὼν ἄνθρωπος ἔσπειρεν ἐν τῷ ἀγρῷ αὐτοῦ· ὁ μικρότερον μὲν ἐστὶν πάντων τῶν σπερμάτων, ὅταν δὲ αὐξηθῆι μεῖζον τῶν λαχάνων ἐστὶν καὶ γίνεται δένδρον, ὥστε ἐλθεῖν τὰ πετεινὰ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ὶ κατασκηνοῦν ἐν τοῖς κλάδοις αὐτοῦ.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Ἄλλην παραβολὴν ἐλάλησεν αὐτοῖς· ὁμοία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ἡν ζύμη, ἣν λαβοῦσα γυνὴ ἐνέκρυσεν εἰς ἀλεύρου σάτα τρία ἕως οὗ ἔξυμῶθη ὅλον.

첫째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사람이 밭에 ‘심은’(ἔσπειρεν) 겨자씨와 같다. 헬라어동사 ‘ἔσπειρεν’이 단순과거 시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천국은 ‘이미’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ἐν τῷ ἀγρῷ) 심겨져 있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그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겨자씨(σίναπι)처럼 작다. 하지만 그 씨는 성장해서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세상의 나라들을 상징)이 그 나무아래 깃들이게 될 것이다.⁴⁷⁾ 이 비유에 따르면, ‘현재’ 이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는 그 시작이 미미하나 종국에는 온 세상이 그 통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이란 ‘미래적

46) W. D. Davies and D. C. Alli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2 (Edinburgh: T. & T. Clark, 1991), 415-418.

47) Ulich Luz, *Matthew 8-20* (Minneapolis: Fortress, 2001). 261-262.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해준다. 천국은 가루 서 말에 '넣은'(ἐνέκρυψεν, 단순과거 시제 직설법 동사) 누룩과 같다. 누룩이 가루 속에 숨겨져 있어 당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 서 말 가루 전체에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적 '천국'(하나님 나라)은 은밀히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여 잘 보이지 않는듯하지만,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퍼져나가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천국'(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惡)과 혼돈(混沌)이 현존하는 이유에 대한 예수의 답은 분명하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였지만, 그 나라(통치)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다음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사해 준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ἐν τῇ συντελείᾳ τοῦ αἰῶνος)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마태복음 13:47-50)

앞서 살펴본 비유에 따르면 현재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는 은밀히 이 세상에 들어와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으며 지금은 그 통치의 미래적 완성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 위에 인용된 천국 비유가 암시하듯,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미래적 비전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세상 끝'(ἐν τῇ συντελείᾳ τοῦ αἰῶνος)에 현(現) 시대에 존재하는 악(惡)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와 미래적 완성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already-not yet)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⁴⁸⁾ '하나님 나라'(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48) 이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already but not yet)를 오스카 쿨만은 D-day와 V-day라는 유비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O.

도래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며, 현(現) 시대는 그 완성의 과정 위에 존재하는 한 시점(時點)이다.

V. 최근 한국교회의 천국에 대한 이해의 변화

19세기말 구스타프 달만(Gustaf Dalman)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골자로 한다”고 피력한 이후로 서구 학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가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⁴⁹⁾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 학계에서는 민중신학(民衆新學)을 중심으로 ‘현실 참여’적이고 차안(此岸)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비주류’라는 외연적 한계 때문에, 민중신학(民衆新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국교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후 20세기말 리델보스(Herman N. Ridderbos)의 『하나님의 나라』(1985),⁵⁰⁾ 조지 래드(George E. Ladd)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1985[1974]),⁵¹⁾ 비슬리-머리(G. Beasley-Murray)의 『예수와 하나님 나라』⁵²⁾ 등이 번역·출간 되었지만, ‘번역된 신학 전문서적’이란 한계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은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변화의 전기(轉機)가 마련된 것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한국 성서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저술들이 출판되면서부터이다. 2천 년대 초반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측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적확(的確)

Cullmann,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London: SCM press, 1951), 84-87.

49) Gustaf Dalman,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Edinburgh: T. & T. Clark, 1902), 94; France, 위의 책, 102-103; Keener, 위의 책, 68.

50) 헤르만 리델보스, 황영철 譯, 『하나님의 나라』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51) 조지 래드, 이태훈 譯,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서울: 엠마오, 1985[1974]).

52) 비슬리-머리, 위의 책.

한 이해를 주장하는 성서학자들이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김회권(구약학)과 양용의(신약학)를 꼽을 수 있다. 구약학자인 김회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다니엘서, 사도행전 등을 개관하는 해설서를 꾸준히 저술해 왔고,⁵³⁾ 양용의는 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책으로 출판하였다.⁵⁴⁾ 이 저술들 모두 ‘하나님 나라’(천국)를 사후세계가 아닌 ‘현재적 통치의 관점’으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향적 이해를 호소하였다. 현직 기독교학교·신학교 교수들이면서 대중성과 학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저술가들이기 때문에 김회권과 양용의의 저서들은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천국) 이해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근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국 성서학자들의 본격적인 저작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김형국 목사와 김영봉 목사를 지목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은 2013년에 각각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과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란 책을 출판하여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책들은 주기도문에서 강조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개념’을 역설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나님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마르쿠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영어로는 ‘kingdom’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영역’이나 ‘장소’보다는 ‘통치권’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Kingship왕권’,

53) 김회권, 『사도행전 1:2』 (서울: 복있는사람, 2007);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서울: 복있는사람, 2010);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하』 (서울: 복있는사람, 2009);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서울: 복있는사람, 2007); 김세운, 김회권, 정현구, 『하나님 나라 복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54) 양용의, 위의 책.

‘sovereignty주권’, ‘다스림’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중략) 마태복음의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하나님나라’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중략) ‘천당’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져서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나라는 천당과는 사뭇 다른 개념입니다.⁵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나라를 더 분명히 보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더 깊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⁵⁶⁾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책이 예장통합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주님의교회’ 박원호 목사에 의해 저술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2015)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간 무지(無知) 혹은 무관심했던 한국교회의 자성(自省)과 변화의 요청을 담아내고 있다.⁵⁷⁾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도 가지만, 지금 이곳에 이뤄져야 합니다. (중략)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며, 만물이 의롭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나라입니다.⁵⁸⁾

끝으로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와 관련하여 손기철의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Heavenly Touch Ministry)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이지만 그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저술한 책들을

55) 김형국,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 (서울: 조이선교회, 2013), 148-149. cf. 밑줄은 논문 필자의 강조.

56) 김영봉,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2013), 110. cf. 밑줄은 논문 필자의 강조.

57) 박원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서울: 두란노, 2015).

58) 박원호, 위의 책, 23-25. cf. 밑줄은 논문 필자의 강조.

살펴보면, 김희권, 양용의 같은 신학자들이나 김영봉, 김형국, 박원호 같은 목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⁹⁾ 그런데 기존의 신학자·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통치)의 현재적 구현을 위해 ‘평화’, ‘자유’, ‘사랑’, ‘용서’, ‘순종’, ‘성화’ 등 윤리적 차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⁶⁰⁾ 손기철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나라(통치)의 권능(權能)이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왕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수단, 즉 천국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놀랍고 엄청난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해 증명되었고,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⁶²⁾

손기철에 따르면, 인간은 영(靈)·혼(魂, 마음)·육(肉)을 가진 존재로서⁶³⁾ 신자들의 영(靈)은 구원을 얻어 성령(하늘의 소욕)을 따르지만, 육(肉)은 여전히 땅의 소욕을 좇고자 하는 옛 습관에 익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간의 혼(魂) 곧 ‘마음’은 영과 육이 서로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령에 내어 맡길 때에 신자의 영(靈)·혼(魂)·육(肉) 전인격은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나라(통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59) 손기철, 『알고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서울: 두란노, 2013), 92-106; 손기철, 『킹덤빌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서울: 두란노, 2015), 17-23.

60) 양용의, 위의 책, 251-308; 김세윤, 김희권, 정현구, 위의 책, 62-129; 박원호, 위의 책, 28; 김영봉, 위의 책, 128-141; 김형국, 위의 책, 243-305.

61) 손기철, 『킹덤빌더』, 83-131, 259-278.

62) 손기철, 『왕의 기도』 (서울: 규장, 2008), 130.

63) cf. 데살로니가전서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것이다.⁶⁴⁾ 실제로 손기철은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 때마다 성령의 전인격적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였고, 집회에 참여한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가 기도할 때에 심신의 치유를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⁶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천국)의 이해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토피아적 사후세계’라는 기존의 왜곡되고 편협한 천국 이해에서 탈피하여 ‘신적 통치의 개념’으로서 천국(하나님 나라)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장차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윤리적 차원이든 그것을 넘어선 권능의 차원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천국 이해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걸어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현실참여와 사회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이거나 몰역사적일 수 없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비전과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태복음 6:10의 기도처럼—“나아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VI. 결론

본 소고(小考)는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국교회의 전통적 오해와 새로운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 천

64) 손기철, 『왕의 기도』, 107-114.

65) 그가 이끌고 있는 헤브리터치 미니스트리(HTM)의 홈페이지를 보면, 집회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http://www.heavenlytouch.kr/xe/?mid=main>

국가자'는 개인구원에 치중하여, 이 땅에서 천국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얻어 사후에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알팍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값싸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유토피아적 사후세계만이 아니다. 그 나라는 이미 현재 도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나라)를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천국)는 종말적 완성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종말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사건(event)이 아닌 과정(process)이며, 개인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와 같이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전적 이해는 향후 한국 교회의 구원론과 사회적 사명 정립에 변화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천국, 하나님 나라, 사후세계, 하나님의 통치

원고접수일: 2016년 5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7일

참고문헌

- 김세윤, 김회권, 정현구. 『하나님 나라 복음: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서울: 새물결, 2013.
- 김영봉.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서울: IVP, 2013.
- 김형국.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주기도문』. 서울: 조이선교회, 2013.
- 테이나 L. 로버트. 『아더 피어선과 복음주의 운동』. 박달진 옮김. 서울: 양서각, 1988.
- 드와이트 무디. 『천국』. 김경신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馬布三悅 博士 傳記』.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3.
- 메리 C. 닐. 『외과의사가 다녀온 천국』. 한은경 옮김. 서울: 크리스천서세스, 2014.
- 박순경. 『하나님나라와 민족의 미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박원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서울: 두란노, 2015.
- 배덕만.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 대전: 대장간, 2010.
- 손기철. 『킹덤빌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서울: 두란노, 2015.
- 손기철. 『알고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서울: 두란노, 2013.
- 손기철. 『왕의 기도』. 서울: 규장, 2008.
- 신성종.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서울: 크리스찬서적, 2009.
-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에드워드 도벨리.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스데반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3.
- 이븐 알렉산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고미라 옮김. 서울: 김영사, 2013.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정행업. 『오직 예수: 예수 천당을 권능있게 전하다 순교한 최봉석 목사의 전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조지 래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옮김. 서울: 엠마오, 1985[1974].
- 조지 마스든. 『근본주의와 미국문화』. 박용규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 조지 R. 비슬리-머리.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1986].
- 한승홍. “초기선교사들의 신학과 사상.” 『한국기독교와 역사』 1 (1991): 49-67.
-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헤르만 리텔보스. 『하나님의 나라』. 황영철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 황재범.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신학의 문제.” 『종교연구』 59 (2010): 71-98.
- Albright, W. F. and Mann, C. S. *Matthew*. Garden City, N.Y.: Doubleday, 1971.
- Allen, W.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Edinburgh: T. & T. Clark, 1912.
- Allis, Oswald T. *Prophecy and the Church*.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45.
- Beasley-Murray, George.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Exeter; Grand Rapids: Eerdmans; Paternoster, 1986.
- Blaising, Craig A. “Dispensationalism, The Search for Definition” in Blaising, Craig A. and Bock, Darrell L.(ed.), *Dispensationalism, Israel and the Church, The Search for*

- Definition*.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2.
- Cullmann, O.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trans.) Filson, F. V. London: SCM press, 1951.
- Dalman, Gustaf. *The Words of Jesus: Considered in the Light of Post-biblical Jewish Writings and the Aramaic Language*. Edinburgh: T. & T. Clark, 1902.
- Davies, W. D. and Allison, D.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2. Edinburgh: T. & T. Clark, 1991.
- Davies, W. D. and Allison, D. C.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vol.1. Edinburgh: T. & T. Clark, 1988.
-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2007.
- Hagner, Donald A. *Matthew 1-13*. Dallas, Tex.: Word Books, 1993.
- Keener, C.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Grand Rapids: Eerdmans, 1999.
- Luz, Ulrich. *Matthew 8-20*. Minneapolis: Fortress, 2001.
- Nolland, John. *Luke 9:21-18:34*. Dallas, Tex.: Word Books, 1993.
- Pamment, Margaret. "The Kingdom of Heaven according to the First Gospel." *NTS* 27.2 (1981): 211-232.
- Pennington, Jonathan. *Heaven and Earth in the Gospel of Matthew*. Leiden: Brill, 2007.
- Stassen, Glen H. "The Fourteen Triads of the Sermon on the Mount, Matt 5:2-7:12." *JBL* (2003): 267-308.

국문초록

한국교회의 천국(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이해

김태섭(평택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한국교회에서 “천국”(하나님 나라)은 죽어서 들어가는 미래적 유토피아의 공간으로 곧잘 이해되어 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전도구호는 ‘천국은 죽음 이후에라야 누릴 수 있는 곳’이란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이러한 천국(하나님 나라) 이해의 역사적 뿌리는 세대주의자 존 다비(J. N. Darby)의 영향을 받은 무디(D. L. Moody)와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선교초기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천국이해는 사후세계 일변도였기 때문이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피안적(彼岸的) 차원의 천국이해는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유토피아적 사후세계가 아니다. 예수의 선포와 비유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는 이미 도래한 현재적 실재이다(눅17:20-21; 마5:3, 10; 12:28; 13:44-46; cf. 마4:17). 주기도문의 첫 세 문장이 알려주듯이 ‘당신의(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신의(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 되는 것’이다(마6:9-10).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핵심적 본질은 미래적 공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다(눅17:21). 그의 나라(천국)는 이미 도래했고, 종말적 완성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다.

구스타프 달만이 10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이래, 서양에서는 이에 괄목할 만한 신학전문서적들이 저술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책들이 한국에도 번역·소개되었

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골자로 한 하나님 나라 이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몇몇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도 관련 서적들을 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천국 이해의 변화는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구원'의 개념도 재정립할 것을 요청한다. 천국은 종말적 완성을 향한 과정 가운데 있기에, 구원은 '사건'이라기보다 '과정'이며, 하나님의 통치(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공동체적이기에 구원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것이다.

주제어: 천국, 하나님 나라, 사후세계, 하나님의 통치

Abstract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God(Heaven) in the Korean Church

Tae Sub Kim(Assistant Professor, Pyeong Taek University)

In the Korean Church, the kingdom of heaven(God) has long been understood as referring to the postmortem Utopia. This idea is attributed especially to the early American missionaries, many of whom were influenced by John Nelson Darby, the founder of the dispensation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Such an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has lingered well into the present day. For example, many Christian testimonies of NDE(near death experience) generally describe the kingdom of heaven(God) as the world after death, and always top the best-seller's lists of our time.

It should not, however, be missed that Jesus declared the kingdom of God as the present reality immanent in his followers(Lk 17:20-21; Mt 5:3, 10; 12:28; 13:44-46; cf. Mt 4:17), not only as the future world to enter after death. As seen in the first triad of the Lord's prayer(Mt 6:9-10), the coming of God's kingdom means the realization of God's will on earth. Accordingly, the gist of the kingdom idea in the Bible is not spatiality but God's sovereignty.

Since Gustaf Dalman explained the kingdom of heaven(God) as God's dominion, major theological works on this topic have been translated and introduced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Recently, many momentous volumes are published by Korean theologians, pastors and lay Christians, which demand a modification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kingdom of heaven(God). This change requires us not just to believe the kingdom of God, but to build it on eart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Key words: heaven, the kingdom of God, Utopia, God's sovereignty.